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5. 2. 20.(목) 06:00 < 2.20.(목) 석간 > 배포 2025. 2. 19.(수)

올해 국내투자 119조원 이행계획과 업종별 미국 新행정부 대응 현황 점검

- 제2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2.20일(목) 「제2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주요 국내투자 프로젝트와 미국 新행정부 발 관세 조치들에 대한 대응현황을 점검하였다. 이날 협의회는 산업부 장관 주재 '미 신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1.21)' 및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2.12)' 후속 성격으로 민관 소통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마련하였다.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국내투자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행해나갈 역할을 점검하였다. 업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신설 등 과감한 세제지원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예외적용 등을 위한 입법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한편, 최근 미국 新행정부가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 업계는 급변하는 대외 정책변화 상황을 시시각각 모니터링 하면서, 시나리오별 전략적 대응을 위한 영향분석을 진행중이다. 철강은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TF'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對美 협상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자동차도 '자동차 민관 대미협력 TF'를 상시 운영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對美 설득논리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중이다. 바이오는 단기적으로 미국내 판매재고 확보,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기지 확충 등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업종협회들은 유럽·일본 등 유사입장국의 동종 업종협회들과 공조하여 대외 아웃리치 계기시 정부와 함께 업계의 입장을 잘 설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미국발 관세부과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심화될수록 민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머리를 맞대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올해 119조원으로 조사된 투자계획이 작년 이행실적(114조원)보다 상향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투자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점검해나가자"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남경모(044-203-4210)
		담당자	사무관	홍승범(044-203-4215)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제2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 개요**

□ 일 시 : '25. 2. 20일(木), 10:00~11:20(80분)

□ 장 소 : 한국생산성본부(KPC) 401호 회의실

□ 참석자

○ (정부) **산업정책실장**, 산업정책과장, 화학산업·디스플레이가전팀장 등

○ (협회) 첨단 반도체·바이오·디스플레이·전자·섬유,
제조 자동차·기계·조선, 공급망 철강·석유화학 각 협회 본부장

□ 논의내용

○ 각 업종협회별 미국 新행정부 관련 대응현황

○ 주요업종별 국내 설비투자 주요프로젝트 및 기업 애로사항

□ 진행 순서(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0:00~10:03	3′	인사말씀	산업정책실장
10:03~11:03	60′	❶ 업종협회별 미국 新행정부 대응현황 ❷ 주요업종별 국내 설비투자 주요프로젝트 및 기업 애로사항	업종협회
11:03~11:18	15′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11:18~11:20	2′	마무리말씀	산업정책실장